

기질 및 성격검사

TCI™ 유아용 해석상담 보고서

김마음(여/3세)

유치원: 마음유치원

반: 초록나무반

평가자: 아버지

검사일: 2022-12-01

보고서 생성일: 2022-12-09

“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사람의 성향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일까?
혹은 살아가며 바꿀 수는 있는 것일까? 양육 과정에서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은 고유한 기질을 갖고 태어나서 각기 다른 인성을 발달시키며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아이를 위한 길일까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TCI 검사를 잘 활용한다면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

TCI 검사란?

TCI는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기질'과 후천적으로 발달되는 '성격'을 함께 평가하는 심리 검사입니다. TCI 검사에서 기질이란 어떤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을 뜻하며, 성격이란 중요하게 추구하는 목표 및 가치에서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기질은 무엇이 좋다 나쁘다를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속성으로, 기질에 대해 알아갈수록 아이의 감정 반응이나 행동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격은 자기 자신과 타인, 그리고 삶을 대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지표로 아이가 현재 바라보는 삶의 방향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TCI 검사를 통해 아이의 타고난 기질 특성을 받아들이고, 아이가 가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성격 특성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TCI™ 해석상담 보고서

유아용

· 김마음(여/3세) · 유치원: 마음유치원 · 반: 초록나무반 · 평가자: 아버지

기질 - 유전적으로 타고난 자동적 반응

자극추구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느끼며 시도해 보는 성향

낮음

#신중한
#익숙함을 선호하는



백분위 27 (낮음)

높음

#호기심 많은
#모험을 추구하는

위험회피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피하려는 성향

낮음

#낙관적인
#쉽게 위축되지 않는



백분위 75 (높음)

높음

#조심스러운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사회적 민감성

감정에 민감하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어하는 성향

낮음

#타인의 영향을 덜 받는
#감정 표현이 많지 않은



백분위 67 (중간)

높음

#타인의 감정에 민감한
#사람들과의 정서적 교류를 원하는

인내력

곧바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행동을 꾸준히 지속하는 성향

낮음

#유연한
#현재에 만족하는



백분위 50 (중간)

높음

#끈기 있게 노력하는
#완벽에 대한 기준이 높은

백분위 점수란? 개인이 받은 점수에 대해 100명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위치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TCI에서는 백분위 점수가 30 이하이면 해당 척도의 낮은(왼쪽) 특성을 70 이상이면 높은(오른쪽)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므로 전문가의 해석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TCI™ 해석상담 보고서

유아용

· 김마음(여/3세) · 유치원: 마음유치원 · 반: 초록나무반 · 평가자: 아버지

기질로 알아보기

아이의 기질 유형은
LHM 입니다.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아이가 타고난 특성은?

순응적이며 조심성이 많은 기질을 지니고 있어요. 질서와 규칙이 있는 환경을 편안하게 느끼면서 잘 지키는 편으로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도 낮지요. 흥미로워 보이는 상황에서도 성급하게 행동하기보다는 익숙한 것들을 중심으로 찬찬히 탐색해 나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답니다. 감정 기복도 심한 편은 아니라서, 격하게 떼를 쓰거나 충동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아울러 아이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는 그다지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편으로, 여기저기 산만하게 끼어들거나 간섭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또래에 비하여 차분한 인상을 주기도 하지요. 아이는 생각이 많은 편으로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답니다.

조심스럽게 상황을 잘 살피는 만큼 낯선 상황에서는 긴장하며 위축될 수 있어요. 흥미로워 보이는 새로운 자극을 호기심 있게 탐색하기보다는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모습을 보이곤 하지요. 경험해 보지 않은 일에 도전하거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쉽게 싫증을 내지는 않지만, 평소의 관심 범위 안에서 놀면서 편안해하는 편입니다. 이럴 때면 아이가 겁이 많고 소심한 것 같아서 염려스럽기도 하겠죠. 아이의 불편한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도 있을 거예요. 익숙한 상황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본인의 마음이 편해진 후에야 탐색하고 표현하는 아이라서 처음이 힘들 수 있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면 아이만의 믿음직스러운 모습이 드러날 거예요.

관계에서 드러나는 성향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면 긴장하면서 낯을 가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친해진 후에는 꾸준히 잘 지내는 편이지요. 아울러 친구를 많이 사귀기보다는 익숙한 소수의 관계 내에서 어울리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답니다. 아이는 쉽게 흥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반응이나 분위기도 적절히 살피는 편으로 단체 활동 시에도 큰 어려움은 없어 보여요. 다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거나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울러 아이는 신기해 보인다고 해서 또는 남들이 한다고 해서 자기도 다해보고 싶어 하는 편은 아니에요.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일에는 굳이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요. 자신에게 익숙하거나 즐겁게 느껴지는 놀이를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답니다. 아이가 관계 내에서 자신의 속도에 맞춰 움직일 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

김마음(여/3세) · 유치원: 마음유치원 · 반: 초록나무반 · 평가자: 아버지

기질로 알아보기

아이의 기질 수용하기

신뢰감을 주는 편으로 하나를 깊게 탐색해 나가는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아울러 변화가 적거나 익숙한 상황에서도 크게 불만이 없을 수 있지요. 하지만 그만큼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거나 도전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 수 있답니다. 아이에게 새롭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시켜 주고 싶다면, 아이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놀이나 관계를 조금씩 확장시켜 주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원치 않는 자극은 흥미를 유발하기보다는 오히려 아이를 움츠러들게 할 수 있답니다. 한편 아이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나 반응을 다소 의식하는 편이에요. 이전에 해본 적이 없거나, 잘 하지 못할 것만 같은 일은 시도하려 하지 않을 수 있지요. 이럴 때면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면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결국은 잘 해냈던 경험들을 상기시켜 주세요.



TCI™ 해석상담 보고서

유아용

· 김마음(여/3세) · 유치원: 마음유치원 · 반: 초록나무반 · 평가자: 아버지

성격 -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목표 및 가치

자율성

주도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정도

낮음

#자신감이 부족한
#원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M

백분위 48 (중간)

높음

#자신에게 만족하는
#스스로 해결하려 하는

연대감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지내는 정도

낮음

#갈등을 피하지 않는
#독자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M

백분위 55 (중간)

높음

#조화를 중시하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기 초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몰입하는 정도

낮음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현실적인 주제를 선호하는

H

백분위 90 (높음)

높음

#상상력이 풍부한
#추상적인 주제에 관심이 많은

백분위 점수란? 개인이 받은 점수에 대해 100명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위치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TCI에서는 백분위 점수가 30 이하이면 해당 척도의 낮은(왼쪽) 특성을 70 이상이면 높은(오른쪽)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므로 전문가의 해석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TCI™ 해석상담 보고서

유아용

· 김마음(여/3세) · 유치원: 마음유치원 · 반: 초록나무반 · 평가자: 아버지

☰ 성격으로 알아보기

아이의 성격 유형은
MMH입니다.



자율성



연대감



자기 초월

아이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맡은 일은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아이입니다. 좋아하는 놀이나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하며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요. 때때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위축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옆에서 기다려 주면 자발적으로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황도 잘 받아들이는 편으로 명확한 지침이 없는 활동도 잘 즐길 수 있지요. 상상의 나라를 자유롭게 펼치며 자신만의 세계에 몰두할 때도 있을 거예요.

또한 아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기며 조화롭게 지내려고 하는 편이에요.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다를 때면,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고려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기에, 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한 걸음 이끌어주기

아이는 자기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대체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자신에 대한 믿음도 갖고 있지요. 다만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스스로의 모습에 불만을 품고 자신감이 저하될 수 있겠어요. 그럴 때면 아이가 속상한 감정을 추스를 수 있도록 공감해주고, 일상의 작은 도전들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세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점차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울러 아이는 자신이 바라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충돌할 때 갈등을 겪을 수 있어요. 아이가 특히 어떤 상황에서 힘들어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주세요. 아이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좋아요. 이 과정에서 아이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도 이해하게 되며, 상대에게도 자기 마음을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되지요. 갈등을 잘 다뤄본 경험은 좋은 관계를 맺는 밑거름이 될 거예요.

• 김마음(여/3세) • 유치원: 마음유치원 • 반: 초록나무반 • 평가자: 아버지

“

TCI 해석상담 보고서 내용이 아이와 일치하지 않나요?

아이의 아직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 서툴기 때문에, 실제 아이의 성향과 보호자가 느끼는 아이의 성향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겁이 났을 때 어떤 아이는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어떤 아이는 오히려 과장되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처럼 드러나는 모습이 다를 때는 아이의 본래 성향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지요.

평가자의 성향에 따라라도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본인을 기준으로 아이의 성향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지 않는 아이의 특성이 누군가에게는 걱정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요. 따라서 아이와 보호자 간의 성향 차이가 클수록, 양육하면서 더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보고서 내용과 아이의 모습이 너무 다르게 느껴진다면 전문가와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TCI 검사 문항만으로는 알 수 없는 아이의 특성, 상황적 요인, 보호자와의 상호작용 방식 등을 통합적으로 살펴본다면 아이를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